

해외출장보고서
2017. 7.23 ~ 7.30.
미국/시애틀·포틀랜드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출장목적: 정책적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관련된 정보수집)

2017. 9. 27.

문 종 철 (해외산업연구실 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 박문수(기업생태계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종철(산업통상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 출장기간 : 2017. 7.23.(일) ~ 2017. 7. 30.(일) (6박 8일)
3. 출 장 지 : 미국/시애틀·포틀랜드
4. 출장목적 : 정책적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 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관련된 정보수집

II. 세부일정

일자 (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등)
7/23 (일)	서울 시애틀	18:00 ~13:00	• 서울 출발 - 시애틀 도착
7/24 (월)	시애틀	14:00 ~17:00	•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과 면담자: Stephen Turnovsky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과 교수) Oksana Leuk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과 조교수)
7/25 (화)	시애틀 포틀랜드	8:00 ~13:00	• 시애틀 출발 - 포틀랜드 이동
		14:00 ~17:00	• Pacific Northwest Economic Region Annual Summit 참관
7/26 (수)	포틀랜드 시애틀	10:00 ~12:00	• Pacific Northwest Economic Region Annual Summit 참관 (2일째)
		13:00 ~18:00	• 포틀랜드 출발 - 시애틀 이동
7/27 (목)	시애틀	13:30 ~15:00	• Center for Health Trends and Forecasts, University of Washington 면담자: Joseph Dieleman (University of Washington 조교수)
7/28 (금)	시애틀	10:00 ~11:30	• Center for Studies in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면담자:

			Emilio Zagheni (University of Washington 교수)
7/29 (토)	시애틀	14:15	시애틀 출발
7/30 (일)	서울	17:45	서울 도착

III. 출장 수행내용

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shington

주요 면담내용

-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산성, 경제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2. Pacific Northwest Economic Region Annual Summit

주요 면담내용

- NAFTA 현대화 관련 연구 성과
- 미국 및 캐나다의 통상정책과 노동력의 관계
- 오레곤주 제조업 혁신센터의 노동력 관련 연구사례

3. Center for Health Trends and Forecasts, University of Washington

주요 면담내용

- 세계각국 및 미국의 보건지출 경향

4. Center for Studies in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주요 면담내용

-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와 자녀교육비용이 인구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IV. 출장의 성과(또는 시사점)

1.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shington

□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산성, 경제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

-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인구 증가에 의해서 발생
- 인구 규모의 증가효과(population effect)는 각 산업 분야별 생산성에 따라서 특정 산업에서는 생산요소 및 노동력이 유입되고 다른 산업에서는 생산요소 및 노동력이 유출되는 구축 효과(push effect)와 흡인 효과(pull effect)와 공존하면서 서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음.
- 국가가 발전하고 생산과 소비의 조건에 더욱 융통성이 생김에 따라 이 인구효과, 구축효과, 흡인효과의 세 가지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은 변화를 가져오게 됨
-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의 형태 차이가 서로 다른 경제발전의 양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영국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유출 되는 구축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기에는 인구 효과가 큰 역할을 하게 됨

○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및 불평등과의 관계

-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짐.
- 인구 증가의 원인이 출산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면 인구의 증가율의 상승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구 증가의 원인이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망률의 감소는 개인들의 저축에 의한 편익의 증가로 저축 성향을 강화

하는 반면 출생률의 증가는 1인당 자본축적 및 총저축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 저축이 경제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 성향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출생률의 증가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보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됨
- 출산률의 증가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약간의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하지만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옴. 이는 최근 제기 되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 및 양극화의 문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시사함

2. Pacific Northwest Economic Region Annual Summit

□ 주요 면담내용

- NAFTA 현대화 관련 연구 성과
- 미국 및 캐나다의 통상정책과 노동력의 관계
- 오레곤주 제조업 혁신센터의 노동력 관련 연구사례

○ NAFTA 재협상을 둘러싼 시각

- 회원국 중에서 NAFTA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으로 설문조사 결과 39%의 응답자가 NAFTA가 자국에 해가 된다고 대답. 멕시코도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33%로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6%의 응답자만이 NAFT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
- 미국 내에서도 지지 정당별로 NAFTA에 대한 시각이 달랐으며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NAFTA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
- 그외에 인구정보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10~20대보다 50대 이상이, 흑인 및 히스패닉보다 백인이 NA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 NAFTA 현대화의 방향

- 현 NAFTA 체제에서 국경정책·규제협력·식품안전 및 위생 등은 매우 잘 작동되고 있으므로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농업·정부조달·무역구제·수입민감품목에 관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력 이동과 개발과 관련된 항목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비스 무역과 에너지·각종 위원회 활동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NAFTA 타결 당시 고려가 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중요성이 커진 항목으로 NAFTA 재협상에서 고려가 되어야 함
- 조항별로는 지적재산권·투자·통화정책 등은 다른 지역과의 무역협정을 참고해서 개선, 기술적 무역장벽·반부패·선의의 규제·투명성·경쟁정책 등은 NAFTA가 다른 무역협정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며, 디지털·노동·환경·중소기업 등은 NAFTA와 다른 무역협정의 장점을 잘 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 태평양 북서지역 경제정상화회의는 지역 정치인들과 산업계로 하여금 캐나다와의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캐나다 기업협회와 더불어 교역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에 매진

○ NAFTA와 노동정책

- 현재의 NAFTA 체제 하에서 회원국 간 교역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인력 이동임
- NAFTA 현대화 작업반으로 하여금 개정되는 NAFTA에 전문직 및 무역관련 노동력 이동 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며 외국인 노동자 및 계약직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핵심 노동 기준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도록 함
-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현재의 법률규정 하에서 노동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함

○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사례: 오레곤주 제조업 혁신센터의 사례

-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술직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고 직업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구인난과 실업문제를 해결

-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세계의 전문가와 연결시키도록 함

3. Center for Health Trends and Forecasts, University of Washington

□ 주요 면담내용: 세계각국 및 미국의 보건지출 경향

○ 보건 지출과 경제발전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경제발전의 정도가 보건관련 지출과 밀접하게 관련
- 보건관련 지출은 개발원조 자금 및 개인 지출에서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추세임
- 보건지출 증가의 절대치로는 고소득 국가가 가장 높았으나 증가율로 따지면 상위 중간소득 국가와 하위 중간소득 국가의 폭이 가장 컸음
- 약 60%에 가까운 보건비용이 정부 지출로 총당되었으나 저소득 국가는 개인지출 의존도가 약 30%, 개발원조자금 의존도가 약 35%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위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58%의 개인 지출 의존도와 3%의 개발원조자금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개발원조 자금을 통한 보건관련 지출은 그 증가세가 많이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로 개발원조 자기에 의한 보건관련 지출의 비중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시기나 각 국가의 경제개발의 정도는 보편적 국가 의료보험의 필요조건인 적절한 수준의 보건관련 선행지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보건지출 경향

- 미국의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개인 및 공공 보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허리 통

증 및 목 통증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조사대상을 특징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리하는 경우 각 그룹의 연간 보건지출의 변동은 차이를 보임

4. Center for Studies in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 주요 면담내용: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와 자녀교육비용이 인구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 대학 입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현상

- 대학입학 제도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강요하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낮은 출산률의 원인으로 지적

- 과거의 연구는 이러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문화에서 원인을 찾음

○ 그러나 실제 원인은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라는 제도적 요인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하는 원인임

-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른바 명문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추가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를 제시

- 이러한 현상은 역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두드러짐

○ 이러한 추가적 이익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침을 ‘양과 질의 교환모형(quality-quantity model)’을 통하여 증명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에 배분할 수 있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숫자가 적을수록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좋아짐

-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질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한정된 소득 하에서 자녀들의 출산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옴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 한자녀 정책(reverse one-child policy)”를 제시함
 - 역 한자녀 정책이란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명명하였으며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것을 처벌하는 중국과는 달리 다자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출산률을 제고하는 정책
 - 국·공립 대학이 다자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입학에 가산점을 주도록 법제화하고 다자녀 가정 출신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경우 해당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함
 -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자녀 보조금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고, 교육의 차이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추가되는 자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모든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이점이 있음
 - 또한 교육에의 지원을 통한 인적 자본 확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자의 노동활동 참여 증가와 건강관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